

# 尹 “K-반도체 산업에 26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제… 17조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을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산업을 중점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여준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소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

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도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낮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역성 기반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을”

광주시의회서 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현재와 미래’ 주제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성에 기반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문화’로 평가받는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전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이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2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인문대학, 호남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반영한다. 예산은 특히 4대 역점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과 위상 강화 등에 투입한다.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국가가 문화 부문에서 해보지 못했던 신규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5대 (문화전당·교육·융합문화과학·아시아공공문화·미래교육문화·시각·미디어 문화) 문화 사업이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데다 ‘문화전당 건립’만으로 사업이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된 만큼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지역’이 가진 특색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정성구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 내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예술 진흥·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에 수혜를 주고 있다”며 “아시아문화포럼,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등 MICE 산업과의 연계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사업 추진 균형을 위해 5대 문화권 간 로드맵을 구축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재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창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성에 기반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유한 상품성이며 도시의 정체성이다”고 조언했다.

이후 김봉국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와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광주가 아시아와 세계를 문화로 이룰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2031년 일몰 이후를 대비해 아특별을 개정하고 아시아문화도시(달빛) 조성정을 설립하겠다. 개정이 안 될 경우 문제부 일몰회계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시의회 후보기 원 구성 관심

7월8일 의장·부의장 선거…초선 의원 활약 주목

제9대 광주시의회 후보기 의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7월1~3일 제9대 후보기 의장단 후보자 신청을 받아 오는 7월8일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다.

상임위원장은 7월11일, 운영위원장은 7월16일 선거를 치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위는 7월19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제9대 후보기 의장 선거에는 초선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재선 의원을 꺾고 당선될지, 재선 의원에게 패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의장 선거에 출마표를 낸 의원은 초선인 강수훈(서구1)·박수기(광산5), 재선인 박미정(동구2)·신수정(북구3)·심철의(서구4)·조석호(북구4) 의원 등 6명이다. 이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표심 확보에 나서는 등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나 기자 khn@

## “특검 거부했다고 탄핵 거론, 혼란 부추겨”

국힘 비상대책위 회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줌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혐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병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라며 “야당은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따르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

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중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3건), 노무현 정부(3건), 이명박 정부(1건) 등 역대 정부에서도 재의요구된 법안이 대표적 없이 임기만으로 폐기됐다고 상기시키며 “김 의원은 중립적 국회 운영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국힘 지도부, 평산마을 文 전 대통령 예방

盧추도식 참석 후 사저에서 환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통합’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문 전 대

통령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20분가량 환담을 한 황 위원장은 정치 복원, 민생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가) 늦에는 형식적이고 틀에 잡힌 이야기를 해도 저녁에는 허허벌덩 이야기 나누며 많은 것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저녁이 있는 정치’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곡 바로 바로 확인까지 곡!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배수박/바닥/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자료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들지점 062)381-1971~2	양동생들지점 062)361-4472~4	유덕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로마트동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